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9.6~2017.9.1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인간불교’ … 부처님이 본래 품은 뜻

인간불교, 부처님이 본래 품은 뜻

성운 대사 지음 | 조은자 옮김
운주사 펴냄 | 2만 2천원



이 책을 읽다보면 불교가 지금 나와 이웃의 구체적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며, 나아가 불교가 사회에서 지녀야 할 역할과 지향할 방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 또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즈음, 이 책이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방향성 숙고를 위한 참고서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 이들 종교는 나름의 교리체계와 문화를 지녔다. 불교 역시 기독교, 이슬람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의 하나로서 역사 속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니면서 오늘날까지 지속된다. 역사적으로 불교는 원시불교 부파불교 소승불교 대승불교 밀교 등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오늘날 세계에도 각 문화권마다 다양한 모습의 불교들이 있다. 여기에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인간불교라는 모습도 있다. 그렇다면 인간불교는 과연 어떤 불교일까?

‘인간불교’라는 말에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교, 나아가 종교란 과연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바로 불교는 인간의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종교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대만의 성운대사가 한평생 설하고 실천해온 인간불교의 총체적인 모습을 자신의 체험과 깨달음에 의거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서술한 것이다. 즉 불교의 발생과 교리, 발전해온 역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인간불교의 다양한 모습들을 조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교는 결국 인간을 위한 종교, 즉 인간불교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인간불교가



대만의 성운 대사

저자가 평생 실천한 인간불교 소개
현대적 인간불교의 의미 설명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문에서는 인간불교에 대한 질문과 대답 형식을 통해, 그리고 저자의 삶과 체험을 통해 불교는 곧 인간불교이며, 이것이 부처님이 본래 품은 뜻(本懷)이라는 것을 밝힌다.

제 1장 ‘총설’에서는, 불교는 인간의 행복과 안락을 위하므로 당연히 불교가 곧 인간불교이지만, 특별히 ‘인간’이란 두 글자를 강조하는 이유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인간불교는 가정윤리 중시, 조화로운 사회 건설, 융성하고 평안한 국가 건설, 자비와 지혜로 인간을 교화하는 보살의 불교임을 말한다. 제 2장 ‘부처님의 인간생활’에서는 인간 싯다르타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은 바로 인간을 위한 것임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싯다르타의 출가와 구법, 깨달음을 이룬 뒤 교단을 설립한 일, 부처님의 하루 생활, 제자를 교화하는 모습,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보시 등이 포함돼 있다.

제 3장 ‘인간불교의 근본교의’에서는 불교의 근본교의인 삼법인, 사성제, 십이인연, 그리고 고와 공, 무상과 무아 등의 근본교리를 해설하면서, 이들이 모두 부처님이 중생을 환희와 광명, 해탈된 자유로운 인생을 맞도록 인도하기 위해 설한 진리라고 설명한다.

제 4장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이후의 발전’에서는 불교가 중국사회에 끼친 영향을 서술하는데, 교육과 복지, 문학과 예술 등에 불교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음을 밝힌다. 아울러 중국에서 불교가 몰락하게 된 원인들을 지적하며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

제 5장 ‘현대 인간불교의 발전’에서는 중국 근현대사서 불교가 쇠퇴할 수밖에 없던 여러 요인들을 검토하고, 이를 거울로 삼아 나온 인간불교가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문화, 교육, 포교, 자선 등을 통해 불교계 내부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밝혔다. 제 6장은 ‘총결’ 부분으로, 인간불교는 그간의 전통적인 출세간 중심, 승려 중심, 사찰 중심에서 과감히 벗어나 출세간의 정신으로 입세간의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는 것이며, 현대인이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인간정토를 촉진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이렇듯, 불교는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인간 불교’지만, 실상은, 불교는 현실과 거리가 있는 비현실적인 종교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불교를 고도의 형이상학적인 철학으로 여긴다든가, 아니면 힘들 때 복을 비는 기복적인 민간신앙 같은 것쯤으로 여기는 것 등도 같은 맥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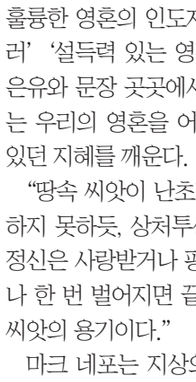
이 책에서는 불교가 관념적, 비현실적 종교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현대적이며 인간적인 종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읽다보면 불교가 지금 나와 이웃의 구체적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며, 나아가 불교가 사회에서 지녀야 할 역할과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 또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즈음, 이 책이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방향성 숙고를 위한 참고서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들음은 모든 것과 소통하는 삶의 동반자

그대의 마음에 고요가 머물기를

마크 네포 지음 | 박윤정 옮김 | 흐름출판 펴냄 | 1만 5천원



뉴욕타임스가 꼽은 베스트셀러 저자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의 마크 네포가 〈그대의 마음에 고요가 머물기를〉로 돌아왔다. 전작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에서 암 투병의 깨달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다면 이번 책에서는 듣지 못하는 고통을 견뎌내고, 더욱 깊은 들음의 경지로 이르게 된 삶의 축복과 의미들을 펼쳐 보인다.

시인의 사유와 영혼의 사유를 응집한 궁극의 명상서이자 삶의 지침서인 이 책은 우리 너머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더욱 생기 있는 영혼으로 지상에 머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준다. 마크 네포는 “호흡이 폐에 활력을 불어넣듯 들음은 마음에 생기를 더해준다. 멈추어 듣지 않으면 중요한 것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들음은 모든 것에 귀 기울이고 모든 것과 대화를 나누게 하는 삶의 동반자이다.”라고 말한다. 암 투병을 이겨낸 그는 서서히 귀가 들리지 않는 고통을 견뎌내고 〈그대의 마음에 고요가 머물기를〉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들음임을 일깨워준다.

저자 마크 네포는 뉴욕타임스가 꼽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시인이며, 철학자, 영혼의 테라피스트다. 그는 인간 여정의 지속적인 탐험을 통해 ‘우리 시대에 가장 훌륭한 영혼의 인도자 가운데 한 명’ ‘최고의 스토리텔러’ ‘설득력 있는 영적 스승’으로 불린다. 그의 시적인 은유와 문장 곳곳에서 드러나는 잔잔한 파도 같은 문체는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짐과 동시에 심연에서 잠자고 있던 지혜를 깨운다.

“땅속 씨앗이 난초나 히아신스로 피어난 자신을 상상하지 못하듯, 상처투성이 마음이나 절망에 휩싸여 있는 정신은 사랑받거나 평화로운 자신을 그릴 수 없다. 그러나 한 번 벌어지면 끝까지 자신을 열어두는 것이야말로 씨앗의 용기이다.”

마크 네포는 지상의 존재로서 영혼의 소명에 가닿을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 숨 쉬고 있는 씨앗을 끄집어낸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불안한 인간의 여정에서 결코 축복이 아닌 것이 없음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조차 삶의 목적임을 깨닫게 해준다. 삶의 덧없음과 변화무쌍함을 끌어안을 수 있는 혜안이 그의 글 곳곳에 놓여 있다.

“우리는 매일 길모퉁이에서 온갖 모습으로 위장한 천사들을 만난다. 이 천사들은 노랫소리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른다. 옳거나 틀린 길은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슴뿐이다. 물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가슴을 열고 모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면 믿을 만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데는 고요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 책의 원서 제목은 〈SEVEN THOUSAND WAYS TO LISTEN〉이지만 들음에 대한 수학적 방법이나 시크릿은 없다. 그저 끝없는 들음과 종국의 고요를 가리킬 뿐이다. 그러나 들음의 의미를 각자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확장시키기를 권한다. 예를 들어 ‘진실을 언제나 내 앞에 두는 길’ 혹은 ‘받아들임의 방법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들’ 같은 것이다. 또 이 책은 이렇게 근원에 소리에 귀 기울였던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불어넣는다. 청각 장애가 선물한 지고의 침묵의 귀 기울였던 베토벤, 상대성의 속삭임이 들릴 때까지 물체를 계속 움직여보았던 아인슈타인이 그 예다. 결코 이론으로서 존재하는 들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현존의 들음을 담아냈다.

“깊은 들음을 갈고닦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순간 속에 있든 그 순간 속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가도록 자신을 내버려두는 것이다. 언제나 존재하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곳을 발견하기 위해 여행을 할 필요는 없다. 그저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하고 우리 존재의 토양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오랜 호우 뒤에 뿌리가 땅속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이 책은 ‘1장 존재의 작업, 2장 인간됨의 작업, 3장 사랑의 작업’으로 구성돼 있다. 1장 존재의 작업에서는 우리들보다 큰 존재와의 우정을 탐구한다. 한편 2장 인간됨의 작업에서는 경험과의 우정을 통해 삶에 필요한 지혜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그리고 3장 사랑의 작업에서는 타인들과의 우정을 통해 보살핌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이 세가지 우정(존재와의 우정, 경험과의 우정, 타인들과의 우정)은 이 책이 탐구하고 있는 수많은 들음과 삶의 여정을 잡아주는 틀이 된다.

“심연의 바닥을 훑고 나가게 파도가 우리를 후려치듯 고통과 두려움이 내 목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러나 탁 트인 하늘 아래 한 알의 모래 알갱이처럼 서 있자 두려움은 힘을 얻을 자리를 잃었다. 태양의 달램으로 구름이 하얀 배를 드러냈다. 나는 다시 확장되기 시작했다. 파란 하늘 아래서 다듬어지지 않은 들판의 풀들이 이리저리 일렁였다. 태양이 작게 고동쳤다. 나도 작게 고동쳤다. 쓰러진 나무 밑에서 꺾여 있던 빛이 내가 찾던 진실처럼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영혼의 소명과 영혼의 부름에 응하는 들음의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충만한 인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시인으로서의 삶, 암 투병자로서의 삶, 청력의 상실을 경험하고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낸 사람으로서의 깊은 사유와 생에 대한 회고, 일상 순간에 대한 의미와 찬사까지 이 책은 어느 한 곳 눈 뗄 데 없이 넓고 그윽하다.

김주일 기자

